

한교총, 감사의 달 맞아 연합운동 공로자 초청 오찬

연합운동 협력해 온 원로들에 감사의 마음 전해



한국교총연합(이하 한교총)이 5월 감사의 달을 맞아, 4월 낮 12시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연합운동 공로자 초청 오찬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교총 명예회장을

비롯해 교단에서 추천한 전 총회장 50여 명이 초청되었다. 한교총은 이날 행사에서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연합운동에 협력해 온 원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송홍도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하여 이영훈 목사가 '의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설교에서 가족사를 소상히 설명하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현인 한종들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교총 흥보영상을 시청하고 인사를 나누며 기념 활동을 하는 등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오찬을 나눴다.

한교총은 협직 회원 교단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교계 원로들에 대한 예우와 배려를 위해 매년 5월 교단의 추천을 받아 원로 초청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반대

"다음세대 위협하는 '퀴어축제' 서울광장 개최 불허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이하 수기총)를 비롯한 1,20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세대의 성적 가치관을 위협하는 동성애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주요 셀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

대, 수기총 전문위원)의 사회로 이영희 교수(한국교총연합회장)가 모두 발언에 나섰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유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전시하는 동성애퀴어축제의 목적성에 대한 물의 해와 안일한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자녀들에게 성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음란성을 촉발하는 '2023 동성애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즉시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단체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23 퀴어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며, "2015년 이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사회혼란과 갈등을 유발해온 동성애 퀴어축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동성애퀴어축제의 목적성에 대한 물의 해와 안일한 판단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자녀들에게 성적 가치관을 왜곡시키고 음란성을 촉발하는 '2023 동성애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즉시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생계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초록우산재단 역시 강릉 산불 발생 직후 3억원 상당의 긴급구호를 실시했다. 재단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함과 더불어 지역 내 아동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화재지역 인근 초등학교와 협력해 심리치료를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재단은 향후 피해상황에 맞춰 지원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굿네이버스는 최근 1억 5,000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는 강릉시, 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 이재민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강릉 주민 4백여 명에게 의류, 식료품,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산불 피해가정 아동들

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굿네이버스는 최근 1억 5,000만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는 강릉시, 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피해 규모, 이재민 대피 현황을 파악하고, 강릉 주민 4백여 명에게 의류, 식료품, 위생용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산불 피해가정 아동들

강릉 산불에 기독 NGO들 '긴급지원' 나서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아동들을 돋기 위해 기독 NGO들이 두 팔을 걷어부쳤다.

지난 11일 오전 8시 22분 강릉시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379ha(헥타르)에 걸쳐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냈 후 진화됐다. 정부는 이를 날인 12일부로 강

10주년 맞은 한국교회법학회 감사예배 드려

"한국교회 수호하는 법제 방파제 될 것"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의 목사)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과 함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교회법학회는 이날 "인권과 차별금지를 내세운 반기독교적 악법에 법리적, 교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교회연합기관 및 교단총회와 협력해서 이를 막아내는 데 힘을 다한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학회는 또한 △한국교회 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제43회 정기총회 개최

대표회장 유완기 장로 선출



한국장로회총연합회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43회 총회를 열고 새 대표회장에 유완기 장로(기감)를 선출했다.

17개 교단, 회원 201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직접대표회장 최내화 장로의 사회로 개회선언, 회순체례, 감사보고 등을 마치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전현 위원회가 보고한 신임 임원을 인준했다. 이날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유완기 장로는 "한장총이 활짝이 넘치고 위상제고는 물론 장로님들의 영성과 자존감을 극대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장총은 43회기 사업으로 정기총회, 실행위원회, 임원회, 세미

나, 사회봉사사업, 전 입원 초청간담회, 신년하례회, 미남가주 장로회 교류, 군부대 위문 등을 진행한다.

다음은 임원명단

▲대표회장: 유완기(기감). ▲총부: 양호영(합동). ▲부총부: 임원섭(대신) 송광우(그리스도) 김일수(기장) 정규성(백석대신). ▲서기: 이문규(고신). ▲부서기: 이향수(국군) 송인기(개혁). ▲회의록서기: 최인호(합신). ▲부회의록서기: 왕준복(나사렛) 구성조(통합). ▲회계: 전원일(기감). ▲부회계: 정학영(백석) 임일규(기하성여의도). ▲감사: 노성배(기성) 한승열(기하성서대문) 이광섭(예성).

한 권의 책



하나님의 어부바

최근 유상민 목사(한우리교회, 인천서지방)가 2021년에 출판한 '같은 길, 다른 길'에 이어 두 번째 책 '하나님의 어부바'를 출판했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한우리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중 일부이다.

유상민 목사는 출간의 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동안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셨고, 매 주일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난 3년간 우리 밭의 등이었고 우리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우리의 '에덴아셀'이고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우리의 '벧엘'입니다. 때로는 작은 교회, 이를 없는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를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유명한대로, 이를 없는 무명의 목사들은 또 무명한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보통이 아닌 '뉴스피터'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하나님의 어부바'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작은 서점에서도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6월 중순 경에는 전자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저자 유상민 출판사/목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설교를 합니다. 그 기록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이 또한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것과 같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어부바'는 인터넷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각 지역의 작은 서점에서도 주문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6월 중순 경에는 전자책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보통 목사의 10분 성경 : 마태복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을 더 알고 잘 알기 원한다.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하자처럼 성경을 탐구하는 이들도 있지만 신약의 관문 마태복음 1장의 죽보를 통과하기도 벅찬 이들도 많다. 그 데다 말씀에 대한 갈증과 사모함으로 성경을 알고자 애쓰는 이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보통 신자'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한 구절씩 강해하는 대신, 장별로 내용을 훑어보고 전체적 흐름과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한 주제씩만 묵상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그 동안 한 단어, 한 절에 머물렀던 시각이 넓어지며 또 다른 차원의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에는 또한 구독자들이 나눈 묵상도 장당 한 편씩 함께싣고 자신의 묵상을 적을 공간을 마련했다. 말씀을 사랑하는 '보통 신

자'들이 보통이 아닌 '보통 목사'의 안내를 따라 성경 보는 눈이 열리고 저자의 묵상에서 나의 묵상으로, 성경의 내용에서 나의 상황으로 모두의 원리에서 나의 적용으로 깊어지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저자 유상민 출판사/규장



감사의 인사

할렐루야!

한 달 여에 걸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1회 가정의 달 백일장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백일장대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한 원고로 동참해 주신 성결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풍성한 대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결신문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며, 내년에 있을 제2회 백일장대회 주제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결신문사

성결신문은 교단의 유일한 언론기관으로
성결교회의 정체성회복, 전국 교회의 부흥
개인의 신앙성장을 선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독자가 기다리는 신문, 독자에게 사랑받는 신문, 구원사역의
지평을 열어가는 신문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3026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1가길 11 (총회회관)
대표전화 02-732-1288/070-7132-0091~5
팩스 02-732-1285 / 홈페이지 www.sknews.org

성결신문사